2020 인문과학대학 우수 논문 및 창작공모전

국어국문학과 19학번

창작-시 7편

춥거나 추울 수도 있거나 춥지 않을 수도 있는 서신

철문같던 장롱을 열면
매일 싸둔 미련만큼 이불과 옷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남긴다
— 나 이제 차디찬 동풍을 혼자로 맞아

적정適正의 정은 원래 정情이라고
영 아쉬워 짐을 바리바리 꾸리고
뭣 하나 버리지 못하던

나는 여기 혼자여서 외로운 게 아니라
당신과 손끝을 대고 있어 외로운 거였어

모래시계를 아작내놓으면 기다리는 자의 눈에만 오소소 박힌다는 슬픈 소문

그러려면 티백을 찢어다가 우려내는 차를 마셔야겠네
맨 손가락으로 열심히 휘저어야겠네 덜 붉히지 않도록

떠나는데 배웅도 안 오나
나는 영원히 손을 흔드는 섬에 도착할지도 모르지
그곳에서 우리 도시는 기다리는 빛을 깜박거려줄까

찬바람으로 나를 긁고 지나간 화자들아
나 이제 물 속에서 눈도 떠

물고기 그림

內: 울지 않는 눈망울이 얼룩진 것을 본다 그것은 표정보다는 외모에 가깝다 받아쓰는 말투에서 바닷물이 비어져 나온다 삶이 큰일일 때에는 매달려 떨어지지 않는 물방울을 그린다 어느 지점에서 걸어도 지구는 둥글게 구른다 내가 싫어하는 생선이 그의 이마에선 매일같이 하얀 배를 감추며 떠다닌다 함께하려면 스케치조차 잊은 척 해야 한다 그러면 사랑의 결말은 이별 아니면 자기소멸인가

外: 적지 않아서 퇴색된 마음은 손가락을 집어넣어 빼낸다 길어서 편집된 목소리 쥐어박아 기어코 울린다 구토와 발화는 태생적으로 닮아 있다 요새는 꿈도 드물었다 꿈에서 아는 이와 어울린 나를 모른다 서두르지만 않으면 또랑으로 굴러가는 노랫말을 들을 수 있다 적적하고 불투명한 수조에서 홀로 어색한 귀신이 된다 나를 몰라도 나는 여기 있지 무섭지 물감을 엎질러서 세상이 연한 것 같다 뜨겁지 않은 흉터를 증명하듯이 내민다 글쎄만으로 대화가 이어지는 것을 목격한다

투정의 시대

여기 빈 벽인데
사진이나 찍어다 먹는 까닭은
투쟁의 시대가 갔고 모든 패인 자국마다 줄창 앉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랑 동갑일 때는 왜 창피한 말로 창피한 마음을 칠하지 못했지
이건 처음으로 글씨를 쓸 수 있는 종이를 만져본 것처럼 아등바등하다는 생각
갓 태어난 연기를 하자면
잃고 싶지 않았던 걸 사실은 단 한순간도 가져본 적 없었다는 생각

나는 이제 나를 쪼개서 버리려고

안타까운 점은
그런 건 매번 갈비 속으로 들어왔다 나간다는 것이고
눈물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마르니? 그러나 하루아침에 마르고

짐작할 수 없는 표정을
척척 쌓아 짓다 보면
언젠가 동강낼 수 있겠지
바람이 아니라 다짐
다시
다짐이 아니라 애걸!

깊이 찔러 웃네

책 파는 일을 그만두어요
아무도 나를 베낄 리 없겠지만
아무도 나를 망칠 리 없겠지만

온통

온통은 세상에 온통을 뱉었다 온통은 자라서 온통이 되었다 온통은 드디어 온통이라고 불리었다 일방적으로 처맞을 거라면 즐겨라는 말은 어떤 자식이 했지……
착각하는 게 하나 있다 모래는 사실 날 때부터 모래가 아니었다 모래는 온통에서 태어났다

발 사이에 들어가고 발가락의 살점을 긁고 피를 내서 피 묻은 모래가 된다 이것은 온통이다
핏물도 물이라면 물이다 그는 온통이다

걸핏하면 책상을 식탁을 뒤엎던 숨보다 신음을 많이 흘렸던 덮을 것이 없어 우주를 무겁도록 덮고 자던 아이

온통이 다가왔다 모른 척 하지 말라고
온통은 두껍고 매정해서 눈 마주하기가 쉽지 않아서였다 식구라는 단어로 묶였다 나는 얇아지고 온통은 더욱 두껍고 매정해진다

손톱으로 공동을 뚫는다 온통의 바깥을 보는 구멍이다 온통은 더욱 두껍고 매정해진다

데자뷰를 느끼는 모든 이에게 데자뷰를 느끼는 모든 이가

저물 틈도 없이 꺼져버린 화염이 있었어
그때 풀을 꺾을 때처럼 아름다운 일에만
소리를 내던 한쪽
다 태워 자글자글한 손바닥을 어거지로 펴내고
한쪽이 물었다
너의 회상은 왜 늘 재 뿌린 모양이야
한쪽은 아파하느라 끙끙댔다
한쪽이 다르게 말했다
부지깽이로 그을린 벽지를 발라놓으면 어떡해
한쪽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나는 나의 어린이가 너무너무너무 좋아
한쪽이 고개 저었다
열 오르면 그걸 참을 수 없으면 우리 뛰어내릴까?
한쪽이 고개 저었다
나는 십분에 한 번씩 데자뷰를
한쪽이 고개 저었다
그냥 서걱서걱 베어낼 만큼
한쪽은 처음으로 이성을 찾고 이렇게 말했다 너는 2020년에 죽어있잖아 시체 주제에 어디다가 미련을 두는 거야? 염치가 있어야지… 살던 너는 호수 꼭대기에 살던 너는 뒷산 지하에 살던 너는 행복하게 달걀을 까먹는 열차에 살던 너는 우는 막내 살던 너는 303호 시들시들하게 침대에 누워 뽀뽀를 받던 말간 주인공 살던 너는 파열하는 정류장에서 미아로 남아

우리 화해해야 해
되도록 비상구 바깥에 목을 두고
일정한 무늬의 무빙워크에 올라타 wonderland로 가자
나는 기쁜 세상을 그만 잊어야 할까
간단한 사랑이라고 말할 줄 아는 거 그러면 간단하지 않은 사랑도 있다는 걸 아는 거
모든 생의 연구를 통틀어도 예쁜 토끼, 토끼 귀만 그리던 시절, 대화가 캐롤이던 시절이 말로 표현이 되든 말든, 예쁜 사탕, 예쁜 베개, 예쁜 놀이공원, 나는 사실 어디서 너를 보고 있는 거니

구운 기름을 하수구에 몽땅 버려야겠다
속상한 게 별거야 녹은 국물이 첨벙거린다는 걸 모른척하고
우리 토막낸 지구를 나눠가지자
듣는 것만으로 찡해지는 잠꼬대 그건 내가 아닌 쪽의 그을음
찢으라는 메시지 죄 쏟아부어 전달한다

삶의 결이여 웅얼거리는 서먹한 기억이여
사실은 본래 둥글었던 수십 개의 모서리를 풍화하는 일들이여
지난한 이제에 와 타국의 꿈을 꾸고 있자니
솔직한 건 대체 뭔데 한쪽아 네가 말하는 진짜는 뭔데
내게 남은 건 사실뿐이고 진실은 시궁창에서 점박으로 물든 발뒤꿈치를 핥고
공들여 만든 세상처럼 피부를 함축하는 물질로 몸을 옹송그린
나는 모서리 많은 행성에 떨궈지도록 앉아 네모와 네모 속을 여행할래

아직 멸망까지는 지독하게 한참 남았지
그러니 감감한 걸음으로 누운 걸음으로 욕이 나오는 걸음으로

배경음악이 흐르지 않는 저녁

우리는 집에 와서 냄비에 물을 넣고 불을 붙였다 가슴께로 거품이 차오르는 소리가 괴롭혔다 창밖으로 바쁜 신발이랑 할 일 없는 신발이 같이 지나갔다 밖은 영하였는데 실내는 10도였다 오늘 눈이 내린다면 거기에다 두고 온 강아지가 다시는 웃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둘은 앉은뱅이 식탁에서 끓는 물을 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오르페우스

[그] 혼잣말을 할 거면 말을 하지 말아
[그]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할 거면 말을 하지 말아

[나] 표정으로 말할 거면 말을 하지 말아

초록
초록이 조용하고
그린
그린이 대답하고

구석을 노려보는 반쪽 얼굴
나는 옆모습으로 기어코 알아듣지 못할 말을 했다

[초록] (우는 입술이 한숨) 유일이며 무이며 하는 소릴 하지마 펄떡이는 전생을 양손에 거짓말을 가여운 무덤을 보는 건 아름답지만 반드시 파멸이야 보낸 적 없는데 항상 멀리 가 있어 함께 입었던 짙은 옷이 그리워 동시에 바라보던 허공의 지점이 그리워 내가 명령해도 듣지 않겠거니 고개 돌려 보지 않겠거니 있잖아 이제 그냥 가도 좋아 뒤돌아보기만 해봐

상황이 창백하게 종료된다 부서짐을 견디었던 옛날옛날

(지문으로 으깬 풀 냄새. 조용하고.)
내 평생의 고백보다 기다란 내용이었다